

국내자생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 유전자원의 군락지 조사 및 수집·증식

정상훈¹, 박병천¹, 황은주², 김명미³, 김영재³, 이숙영⁴

¹동신대학교 BIC 약용식물중자은행, ²(주)식물보호식물, ³동신대학교 한약재산업학과, ⁴동신대학교 산업융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

연구목적

동백나무는 동백나무과 동백나무속의 다년생 목본식물로 국내의 자연 분포 범위는 경기도 용진군 대청도의 최북단으로부터 내륙 일부를 포함, 남부 해안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상호 격리생육되어 왔기 때문에 각 분포 지의 생육환경과 화분 및 종자 비산 등의 제한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역분화가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의 주요 자생식물인 동백자원은 전국 식재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상징물인 도화이지만 체계적인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보존·육성 개발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품종 개량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개체군의 유전자 조합이 단순화되고 불안정화 됨으로서 유전자원 확보 및 산지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 유망 자원종인 동백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계통분류와 집단 생태에 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게 된다면 고부가 가치의 우수한 품종의 선발 및 이용 개발 가능성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부내륙 및 해안도서의 특산자생식물인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를 지역별로 탐사, 수집하여 산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서, 동백의 지역종을 영양체와 석엽표본 상태로 보존, 증식,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국내 분포된 동백자생 군락지 조사는 문헌, 보고자료, 인터넷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동백나무가 집중적으로 밀집 분포되어있는 지역을 조사 및 수집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자생종 동백나무의 경우, 국내 자생군락지 34개소(전남 해남군 금강골 외 33개소)를 현지 탐사하여 각 군락지의 위도 및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당 30본씩의 영양체(삽수)와 종실을 수집하여 이관용 영양체(20본)와 석엽표본용(지역종당 2점)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군락지의 전체상, 잎, 열매를 사진촬영하여 1점의 지역종당 3매씩 사진자료를 확보하였다. 증식용 영양체는 삼목상에 치상하였다가 발근후 실외포장으로 이식하여 적응시켰다.